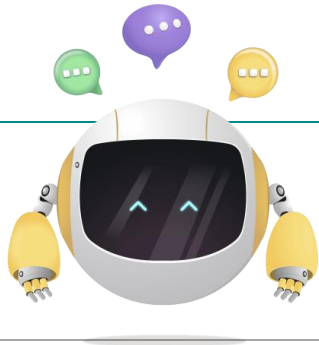




4차산업 포트폴리오

[Tech & Stock] 4차산업 Weekly | 2024.5.7

Analyst 김재임 jamie@hanafn.com

RA 김시현 sihyun_kim@hanafn.com

RA 강교선 kyosunkang@hanafn.com

하나증권 4차산업 포트폴리오 종목별 수익률 현황

편입 종목	종가	주간변동 (%)	월간변동 (%)	FY1 PER	FY1 EPS	연간 매출액성장률(%)		연간 순이익성장률(%)		실적발표일
						FY1	FY2	FY1	FY2	
삼성전자	78,000.0	(0.8)	(7.3)	15.1	5,179.4	19.5	11.6	136.8	36.8	2024-07-08
알파벳	166.6	6.8	7.8	22.0	7.6	12.8	10.9	28.5	16.3	2024-07-25
애플	173.0	1.8	2.5	26.4	6.5	1.1	6.3	4.0	6.2	2024-08-01
메타플랫폼스	441.7	0.1	(11.2)	21.0	21.1	17.5	12.7	37.7	14.0	2024-07-26
마이크로소프트	397.8	(0.3)	(5.6)	33.7	11.8	15.6	14.7	21.9	13.2	2024-07-25
아마존 닷컴	184.7	6.4	2.2	34.5	5.4	11.3	11.4	81.5	24.8	2024-08-02
엔비디아	858.2	3.9	(4.1)	34.4	25.0	84.9	21.1	90.2	21.9	2024-05-22
넷플릭스	565.2	0.1	(8.0)	30.6	18.5	14.7	12.2	50.0	19.7	2024-07-19
IBM	164.7	(2.5)	(12.8)	16.5	10.0	2.4	4.3	5.6	5.4	2024-07-24
ASML	870.3	(3.6)	(10.0)	42.5	19.1	0.4	31.1	(5.4)	57.0	2024-07-17
TSMC	136.2	(0.3)	(2.8)	22.7	195.1	26.3	20.3	17.8	28.0	2024-07-22
알리바바	80.3	6.9	10.2	9.3	62.8	8.2	7.8	12.3	(2.9)	2024-05-14
바이두	111.8	11.9	3.0	10.6	76.5	6.1	7.1	(5.6)	9.6	2024-05-16
텐센트	360.4	4.7	16.9	17.4	19.2	9.4	10.0	18.0	13.8	2024-05-14
비야디	225.0	11.8	13.5	17.7	11.8	23.5	19.1	22.3	24.5	2024-10-30
비자	267.6	(2.7)	(3.9)	26.9	9.9	10.0	10.5	10.4	9.8	2024-07-25
어도비	476.6	0.7	(4.5)	26.5	18.0	10.6	11.5	10.6	11.3	2024-06-13
오라클	115.0	0.1	(7.5)	20.6	5.6	6.6	8.6	11.1	11.7	2024-06-12
서비스나우	695.7	(2.9)	(8.1)	51.6	13.5	21.6	20.5	27.1	19.9	2024-07-26
세일즈포스	272.1	(0.4)	(10.5)	27.8	9.8	9.1	10.3	19.8	14.3	2024-05-31
팔로 알토 네트워크스	295.3	2.3	8.0	53.5	5.5	15.8	14.8	32.6	15.2	2024-05-20
클라우드스트라이크	303.5	1.9	(5.0)	77.1	3.9	30.0	26.2	29.5	25.9	2024-06-04
데이터독	125.5	0.2	0.9	84.2	1.5	20.9	24.0	12.5	27.0	2024-05-07
화낙	4,677.0	1.4	11.8	32.4	144.2	0.3	9.2	2.6	21.3	2024-07-26
지멘스	175.4	0.6	(0.3)	16.7	10.5	3.3	5.5	3.7	8.6	2024-05-16
슈나이더 일렉트릭	213.5	0.4	3.5	25.6	8.4	5.4	7.5	16.4	11.6	2024-07-31
이튼	315.3	(0.6)	0.2	30.4	10.4	8.1	7.5	26.1	12.0	2024-08-01
일라이 릴리	755.9	4.3	(1.1)	56.4	13.4	23.8	23.4	130.6	42.4	2024-08-08
		1.9	(0.8)			14.9	13.6	30.3	18.6	

주: 2024.5.2 종가 기준, 주간 변동은 5영업일 기준
자료: Bloomberg 시장 예상치, 하나증권

애플

상장 국가

미국

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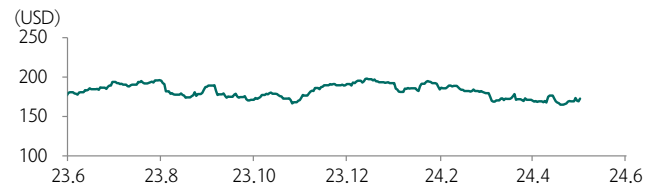
IT

시가총액(십억달러)

2,672

2QFY24 실적 Review

최근 주가 추이



2QFY24 상세 지표

- 2QFY24(3월 결산) 매출액은 908억 달러(-4% yoy), EPS 1.53달러(+1%)로 컨센(900억, 1.50) 상회. 환율은 140bp의 부정적 영향이 있었으며 1) Mac과 서비스 매출이 예상치를 상회, 2) 중국에서 아이폰 매출이 전년동기 일회성 요인 조정 이전 기준에서도 성장으로 전환하며 우려 대비 선전
- 역대 최대 규모인 1,100억 달러의 자사주 매입을 승인. 전년도 900억 달러 대비 22% 상승

[제품별]

- 아이폰 매출 459.6억 달러(-10%)로 예상에 부합. 전년 동 분기에 공장 폐쇄 관련 일회성 영향으로 약 50억 달러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던 것을 고려하면 이번 분기 아이폰 매출 성장률은 -1% 정도로 계산되며 지난 분기 제시했던 전망치에 부합.
- Mac 매출 74.5억 달러(+4%)로 예상치(68.6억) 상회. 3월 출시한 M3 탑재 맥북에어 신제품이 호조
- 아이패드 매출 55.6억 달러(-17%)로 예상치(59.1억) 하회. 2022년 이후 신제품을 출시하고 있지 않으며 다음주 5월 7일에 예정된 이벤트에서 M4칩을 탑재한 아이패드 프로를 출시할 것으로 기대
- 웨어러블 등 매출 79.1억 달러(-10%)로 예상 부합. 전년 동기에는 에어팟 프로 2세대, 워치 SE, 워치 등의 효과가 있어 올해는 역기저로 전년 대비 매출 감소. 비전 프로는 기업형 매출이 호조를 보이고 있음.
- 서비스 매출 238.7억 달러(+14%)로 예상치(232.7억) 상회했으며 역대 최고치를 달성. 애플 TV+ 콘텐츠가 인정받고 있으며 라이브 스포츠도 확대 중. 유료 계정은 전년 동기 대비 두 자릿수 성장.
- [중화권]** 중화권 전체 매출은 163.7억 달러(-8%)로 예상치(152.5억) 상회. 아이폰 판매가 예상보다 호조를 보인 것이 긍정적인 영향. 장기적 관점에서 중국 시장에 대한 긍정적 시각.
- [AI]** 생성 AI에 상당 부분 투자하고 있으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경쟁력 유효
- 새로운 아이패드가 공개될 것으로 예상되는 5월 7일과 연례 개발자 행사(WWDC)가 열리는 6월 10일~14일에 AI 관련 전략을 공개할 것으로 예상

3QFY24 Outlook

- 3분기에 매출액 low-single-digit 성장 전망, 환율 영향은 -2.5ppt 반영. 아이패드 매출 두 자릿수 성장 전망하며, 서비스 매출도 최근의 고성장세를 이어가 두 자릿수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컨센 +10.3%)
- GPM 45.5%~46.5% 전망하며 컨센(46.1%) 부합

아마존닷컴

상장 국가

미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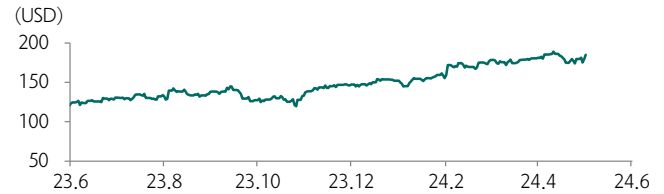
산업

온라인 리테일, 클라우드

시가총액(십억달러)

1,922

최근 주가 추이



1Q24 실적 Review: 수익성 구조적으로 상승세 주목

1Q24 Review: 주요 지표 예상치 상회, 역대 최대 영업이익 달성

- 매출액 1,433억 달러(+12.5% yoy)로 환율영향(-50bps)제외하면 13% 성장으로 가이던스 상단 부합, 윤년(2월29일) 효과는 매출액 성장에 120bps 기여. 영업이익은 153억 달러로 가이던스 상단(120억)을 큰 폭으로 상회하며 역대 최대 이익 달성. 순이익 104억 달러로 컨센을 20% 상회. 영업마진 10.7%로 처음으로 두 자릿수 기록, 모든 사업부에서 마진 개선에 기여했으며 특히 클라우드와 해외 리테일 마진 뚜렷한 상승
- 북미 리테일 매출 863억 달러(+12%), 영업이익률 5.8%로 전분기(6.1%) 대비 소폭 하락했으나 견고한 추세 지속. 해외 리테일 매출 319억 달러(+11%CC), 영업이익 9.0억 달러로 흑자전환, 영업이익률은 2.8%로 전년동기대비 710 bps, 전분기대비 380 bps 개선. 선진국 시장의 경우 네트워크 개선과 규모확대에 따른 레버리지 효과이며 이머징 국가의 경우 판매 항목 크게 증가.
- 클라우드 AWS 매출 250억 달러로 17% 증가하며 컨센(245억) 상회. 클라우드 매출 성장이 전년도 3분기 12%로 저점을 찍고 4분기 13% 기록 후 1분기에 17%로 턴어라운드 가속화. 윤년 효과를 제외하면 16%. 클라우드 영업이익률 37.6%로 기존 추이 상단인 ~30%를 크게 상회. 서버 수명 추정치 변경에 따른 효과가 기여했으며 인프라 & 고정 비용 관리에 따른 레버리지 효과가 주요인. 클라우드 영업마진은 분기별 변동성이 높아 1분기 수준 유지는 어려우며 2분기의 경우 주식보상비용 반영에 따른 부정적 영향 전망.
- 항목별 매출에서 광고 매출이 118억 달러로 24% 증가하며 고성장세 지속. 광고가 중요한 성장 동력이며, 지난 1월 시작한 프라임 비디오 광고 기반 서비스 초기 반응이 긍정적
- **2분기 가이던스** 매출액 1,440억~1,490억 달러(+7%~11%)로 컨센(1,500억) 하회. 환율영향 -60bps로 1분기 대비 부정적 영향 확대 반영하고 미국 대비 유럽 경기 둔화에 따른 소비자 지출 추세 등을 고려
- 영업이익 가이던스는 100억~140억 달러로 중간값 기준 컨센(126억) 하회. 2분기가 주식보상 비용 반영이 집중되는 분기임을 고려하여 보수적으로 추정된 것으로 판단
- AI 서비스를 위한 클라우드 인프라 확대를 위해서 Capex 전년대비 크게 증가 전망(2023년 484억). 1분기 140억이 2024년내 저점으로 향후 분기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

실적 시사점 & 전망

- 분기별 비용 인식 타이밍과 일회성 요인 등으로 1분기 영업이익률 수준을 계속 이어가기는 어려우나 리테일과 클라우드 영업마진 구조적 개선세가 계속될 것으로 기대. 리테일의 경우 물류네트워크 '지역화' 효과가 전년에 이어 계속되고 올해에는 특히 인바운드 네트워크 개선에 집중하여 프로세스 간소화와 자동화를 통해서 향후 추가적인 마진 상승 전망
- 클라우드 사업 관련 주목하는 점은 고객사의 클라우드 사용량 조정(Optimization)이 대부분 마무리되었고, 온프레미스에서 퍼블릭 클라우드로 IT 시스템을 이전하는 '클라우드 전환'이 지난 2년여 동안 주춤한 이후 올해부터 다시 본격적으로 재개될 것으로 기대되어 아마존의 클라우드 매출 성장 가속화 계속될 것으로 예상
- 1분기의 소비지출 추세와 미국 대비 유럽의 경기 둔화에 따른 영향 등을 고려하여 2분기 매출 가이던스를 보수적으로 제시한 것으로 보이며 리테일 부문 가격과 배송 경쟁력, 클라우드 사용량 정상화 효과 등을 고려하면 가이던스 상회 가능성 높은 것으로 보임
- 리테일 물류 마진 구조적 개선, 클라우드 전환에 따른 클라우드 매출 성장 가속화와 수익성 기여, 광고 매출 고성장과 수익성 기여 등을 고려하면 아마존이 본격적으로 수익성을 올리는 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되어 현재 주가 (12M FWD PE 38배) 대비 업사이드 높은 것으로 판단

AWS, Amazon Q 정식 출시

- 아마존 AWS는 작년 11월 공개했던 생성AI 'Amazon Q'에 신규 기능을 추가하여 정식 출시했다고 발표.
- Amazon Q 버전은 세가지로, 'Amazon Q Developer', 'Amazon Q Business', 'Amazon Q Apps'.
- **Amazon Q Developer**는 자연어 명령으로 코드를 생성할 수 있는 개발자용 보조 도구이며, AWS의 기존 코딩 생성AI 'CodeWhisper'가 통합된 것으로 알려짐. 월 50회 상호작용 제한, 월 1,000 줄의 코드 생성 제한이 있는 무료버전과 상호작용 무제한, 코드 생성 제한 4,000줄인 19달러의 프로버전으로 서비스 제공.
- **Amazon Q Business**는 기업 운영과 관련된 모든 질의 응답이 가능한 생성AI. Amazon Q 이용 기업의 데이터를 받아 다양한 방식의 분석을 수행할 수 있으며, 문서 작업도 가능. 기본버전은 월 3달러로 제공하며, 대화형 인터페이스를 이용한 질의응답만 가능. 월 20달러의 프로버전은 문서 등 파일 업로드나 콘텐츠 생성 등이 가능하며, Amazon Q Apps을 무료로 이용 가능.
- **Amazon Q Apps**은 자연어 명령으로 업무별 전용 생성AI 앱 등을 만들 수 있으며, Amazon Q Business 프로버전에 포함된 기능. 신규 기능은 코딩 보조, 앱 테스트, 보안 등으로, 해당 생성AI를 통해 코딩을 모르는 사용자도 앱을 개발할 수 있음.
- Amazon Q 시리즈 출시는 아마존이 본격적으로 AI 기반 수익화에 나서는 것으로 평가 가능하며, 다음분기부터 실적 반영이 예상되면서 AWS 사업부문의 성장 기대.

슈나이더 일렉트릭

상장 국가

프랑스

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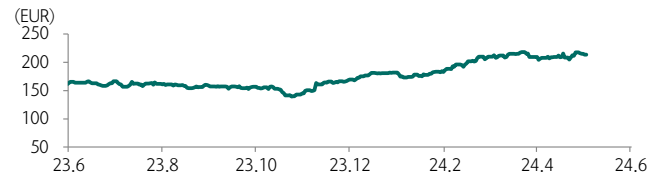
인프라, 산업자동화

시가총액(십억EUR)

119

1Q24 실적 Review

최근 주가 추이



주요 실적 지표

- 1Q24 매출액 86억 유로(+5.3%)로 예상치인 85억 달러를 소폭 상회(이익단은 반기 공시), 1분기 최대치를 달성하는 호실적 시현. 견고한 AI 수요로 데이터센터 모멘텀이 이어지고 있음
- 에너지관리(EM)** 매출액은 69억 유로(+8.9%), 컨센(+8%) 소폭 상회. 북미(+10%)와 RoW(+24%)에서 두 자릿수 성장하며 컨센을 상회했지만 서유럽(+4%)과 APAC(+6%)은 주거용 매출 부진으로 컨센을 하회. 매출액의 80%를 차지하는 EM 사업부에서는 데이터센터와 그리드용 인프라 호조가 이어지고 있음.
- 산업자동화(IA)** 매출액 17억 유로(-6.6%)로 컨센(-8%) 상회. APAC은 전년 동기 대비 3% 감소하며 예상 대비 감소폭 양호. 특히 시장의 우려가 가장 컸던 IA의 중국 매출은 mid-single-digit 성장세로 전환(연속 자동화 부문에서 강한 성장이 나타났고 이산 자동화 역시 성장으로 전환한 점 긍정적). 반면 북미(-10%)와 서유럽(-16%) 매출이 컨센을 하회했으며 예상보다 회복 속도가 느린 점은 우려 요인. 2023년 완전자회사로 인수한 AVEVA가 슈나이더와 회계연도 기준을 맞추며 발생한 타이밍 문제도 일부 매출 감소에 영향.

2024 가이드선 유지

- 매출액 +6~8%, EBITDA 마진 18.0~18.2%로 기존의 연간 가이드선 유지
- (EM)** 전력설비용 인프라 대규모 계약이 이어지고 있음. 전력 유틸리티 Capex 증가는 앞으로도 큰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
- (IA)** 이산 자동화 사업은 예상보다 더딘 회복을 보이고 있으나 하반기(H2)로 갈수록 점차적인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 약세를 보였던 주거용 매출 역시 하반기로 갈수록 회복할 것으로 예상

벤틀리시스템즈(BSY) 인수 논의

- 슈나이더 일렉트릭은 산업용 소프트웨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미국의 벤틀리시스템즈(BSY.US)를 인수를 위한 초기 협의를 진행 중
- 인수 체결까지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있으며 여전히 유기적 성장(Organic Growth)에 우선순위가 있음을 언급

화낙

상장 국가

일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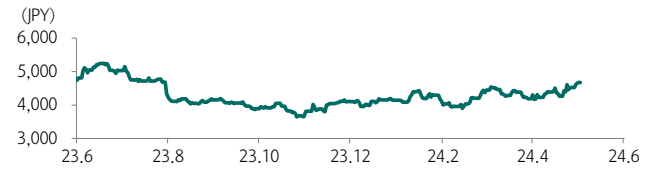
산업

산업자동화

시가총액(십억JPY)

4,423

최근 주가 추이



4Q23 실적 Review

주요 실적 지표

- 4분기(3월 결산) 실적은 매출액 1,987억 엔(-7.9% yoy), 순이익 348억 엔(-14.6%)으로 컨센(1,855억, 292억)을 모두 상회. 수주는 1,734억 엔으로 컨센(1,809억) 하회. 로봇과 로봇머신 수주는 컨센을 하회했으나 FA와 서비스 수주는 컨센 상회. 특히 지난 7개 분기 연속 전년 대비 수주가 감소했던 FA 수주가 +27%(컨센 대비 +17%) 기록한 점 긍정적.
- 로봇 매출액 908억 엔(-9.2%)으로 컨센(929억) 하회. 지난 실적 콜에서 재고조정이 2개 분기 안에 완료될 것이라고 언급했으나 예상보다 한 분기 가량 더 길어지고 있으며 이는 최대 시장인 미국과 중국에서의 EV 투자 감소에서 기인
- FA 매출액 463억 엔(-20.4%)으로 컨센(396억) 상회. FA 수주 컨센 상회하며 4분기에 bottom-out 확인

FY24년 가이드런스

- FY2024년 연간 가이드ン스로 매출액 7,464억 엔(-6.1% yoy), 순이익 1,073억 엔(-19.4%)를 제시하며 컨센(8,161억, 1,433억)을 큰 폭으로 하회
- FA 수주 강세가 지속되고 로봇 재고조정이 앞으로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면 향후 가이드ン스 상향 조정 가능성

4차산업 1등주 주간 주요 뉴스

마이크로소프트 (MSFT.US)	마이크로소프트, 신흥국향 전략 강화 - 태국: 마이크로소프트는 태국에 데이터센터를 설립할 것이라고 밝힘. 마이크로소프트 CEO Nadella는 태국에서도 Azure 서비스와 AI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도록 투자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AI를 통한 생산성 개선으로 태국의 경제가 천억달러 이상 성장할 수 있다고 언급. - 인도네시아: 마이크로소프트는 인도네시아에서 데이터센터 건설을 포함하여 약 17억 달러를 4년에 걸쳐 투자할 것이라고 밝힘. - 말레이시아: 마이크로소프트는 말레이시아에 대한 투자 계획을 밝힘. 세부적으로, 4년간 22억 달러 규모의 클라우드 & AI 관련 인프라 투자와 20만 명에 AI 교육을 제공할 것으로 알려짐.
	Microsoft 365 Copilot 한국어 버전 출시 - 마이크로소프트는 4월 30일에 ‘Microsoft AI Tour in Seoul’을 개최. 마이크로소프트의 해당 투어는 세계 각지 14개 도시를 순회하며 개최하는 것으로 알려짐. - 이번 행사에서 Microsoft 365 Copilot의 한국어 버전을 공개. 이를 통해 마이크로소프트 Office 작업을 한국어 명령을 통해 가능해짐. - 마이크로소프트는 Azure AI Studio에서 한국어로 질문하고 답변하는 것을 시연하면서 동사 시가 한국 문화와 맥락을 이해하여 답변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도 함.
메타플랫폼즈 (META.US)	EU, 유럽의회 선거 앞두고 Facebook과 인스타그램 조사 진행 - EU 집행위는 Facebook과 인스타그램을 상대로 디지털서비스법(DSA)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 - 유럽은 러시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여론 조작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메타가 허위정보 관련 예방 및 대응을 하고 있는지 조사할 것으로 전망. - DSA에 따르면 소셜미디어 운영 시 유해 콘텐츠에 관한 적절한 조치가 필수적. - 유럽의회 선거는 올해 6월 6일~9일 진행 예정
알파벳 (GOOGL.US)	News Corp와 AI 관련 콘텐츠 공급을 위한 계약 합의 - 구글은 AI 관련 콘텐츠와 제품 개발을 위해 Wall Street Journal을 소유하고 있는 News Corp와 계약 내용에 관하여 합의한 것으로 알려짐. 계약 내용은 콘텐츠 라이선스를 얻는 조건으로 매년 500~600만 달러를 지불하는 것. - 다만, News Corp는 현재까지 구글과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바 없다고 언급 - AI 관련 콘텐츠 계약을 맺는 상황은 다양한 기업에서 추진중. OpenAI의 경우 AP통신과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고, 구글은 연초에 Reddit과 비슷한 계약을 맺은 바 있음.
	구글, 구조조정 지속 진행 - 구글은 비용절감을 위해 200여 명의 개발자를 해고했으며, 일부 일자리는 해외로 재조정할 것이라고 밝힘. 이는 개발자 감원 계획 중 가장 큰 규모. - 해고 직원 중 25% 정도는 구글의 본사 인력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멕시코와 인도를 중심으로 추가 인력을 확충할 계획. - 구글 대변인에 따르면, 해당 계획은 해외 고성장 지역에 집중하기 위한 전략. - 구글은 2023년 초, 글로벌 임직원 규모의 6%에 해당하는 12,000여 명을 감원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음.

어도비닷컴 (ADBE.US)	Firefly Image 3 베타 버전 공개 - 어도비는 개선된 버전의 생성AI 'Firefly Image 3' 모델을 공개. 해당 모델은 이미지 생성에 관한 퀄리티를 높였으며, Photoshop에 해당 모델을 통합하여 Photoshop 내에서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힘. - 현재는 PC용 Photoshop 베타버전으로 이용가능하며, 정식 출시는 하반기 예정. - 모델 퀄리티가 향상된 부분은 크게 2가지. 1) 더 긴 프롬프트 명령을 이해할 수 있으며, 2) 더 현실적인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음. 추가로, 어도비는 저작권을 확보한 이미지로만 Firefly Image 3를 학습했다고 밝힘.
TSMC (TSMC ADR)	2026년 하반기부터 1.6나노 생산 계획 & 1.4나노 부지 개발 연기 - TSMC는 4월 24일,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개최된 북미 테크놀로지 심포지엄에서 1.6나노 공정의 로드맵을 최초로 공개. 2026년 하반기부터 1.6nm 공정을 통한 반도체 생산 시작 계획. 예정보다 빠른 A16 기술 개발 성공 배경은 AI 반도체 수요 덕분 - TSMC와 삼성전자는 5nm 이하 미세 공정 양산에 성공한 유일한 두 업체이며 2nm는 2025년, 1.4nm는 2027년이라는 동일한 로드맵을 가지고 있었으나 1.6nm 로드맵을 공개한 것은 처음 - 대만 타이중에 건설 예정인 1.4nm 공정의 부지 개발은 연기. - 중부과학단지 관리국은 본래 올해 6월 중으로 관련 공장의 건설이 시작될 수 있도록 부지를 제공하려던 계획이 예정보다 6개월 늦어진 12월로 연기되었다고 공개
ASML (ASML ADR)	네덜란드에 대규모 생산 계획 추진 - 로이터에 따르면 ASML은 네덜란드 아인트호벤시 지역에 2만명의 직원을 수용할 수 있는 대규모 확장을 모색 - ASML의 해외 이전을 막기 위해 네덜란드 정부가 남부 아인트호벤 지역 인프라 개선에 27억 달러를 지출하겠다는 발표에 따름 - ASML은 성명을 통해 최종결정에 앞서 전력망, 도로, 주택 문제 등 중요 사항을 해결해야 한다고 언급
애플 (AAPL.US)	오픈AI와 아이폰에 AI 챗봇 적용 논의 재개 - 블룸버그에 따르면 애플은 오픈AI와 아이폰 탑재 AI 기술에 관한 논의를 재개 - 다음 운영체제는 애플의 LLM에 기반한 새로운 기능을 탑재할 예정이며 챗봇 기능도 작동시키기 위해 협력사를 물색해왔음. 올해 초 오픈AI와 거래에 대해 논의했으나 진행이 거의 되지 않았으며 구글과도 제미니이 챗봇 논의를 계속해왔었음. - 한편 5월 7일에는 온라인 스페셜 행사 'Let Loose'를 통해 아이폰 신형 모델이 공개될 예정이며 최신 AI 칩 M4를 탑재할 것으로 전망 - 아이폰은 가장 긴 공백기인 18개월만에 신제품이 공개되는 것이며 AI를 탑재한 최초의 애플 기기가 될 것으로 전망
오라클 (ORCL.US)	본사 이전 계획 공개 - 래리 엘리슨 오라클 회장은 본사를 의료 산업의 중심지인 내슈빌로 이전할 계획 공개 - 내슈빌은 미국 내 의료 시스템과 신생 기업, 투자회사의 활발한 네트워크 본거지로 꼽히는 곳 - 오라클은 2020년, 실리콘 밸리에서 텍사스의 오스틴으로 본사를 한차례 이전한 바 있음. 2021년에 Cerner(전자 의료기록 1위)를 280억 달러에 인수하는 등 의료 분야에 공격적인 투자

Compliance Notice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김재임)는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의 압력이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았으며,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신의성실 하게 작성하였습니다.
- 본 자료는 기관투자가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2024년 5월 7일 현재 해당회사의 지분을 1%이상 보유 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김재임)는 2024년 5월 7일 현재 해당회사의 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조사항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